금주의 법구–〈법구경〉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으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3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3월 17일)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나눔의 연등 조계사를 밝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총본산 서울 조계사 경내에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마음을 담은 연등이 빛을 밝혔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4월 2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이웃과 함께 다정한 마음나눔 연등행렬'을 진행했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봉축주간이 시작되는 만큼, 연등행렬을 통해 코로나 극복을 발원하고 우리 사회를 다독이기 위한 취지다. 사진은 대중들이 연등을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연등행렬을 진행하는 모습. **글=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戰後 학생불자 인식 담은 문헌 '新발굴'

마산불교학생회 1955년 창간 '雪山' 실물 확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불자 학생들의 신행활동과 불교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불교학생회의 회지가 새롭게 발굴됐다.

이는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 이하 정법사)가 창건 109주년을 맞아 사찰 관련 근현대 문헌을 수집·망라하는 자료집 〈문헌 속 마산포교당 정법사〉 발간 작업 과정서 확인됐다. 정법사는 1910년부터 1940년대까지 정법사 관련 문헌을 묶어서 최근 첫 번째 책을 내놨고, 현재는 1950년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법사를 중심으로 1955년 10월 31일 창립된 마산불교학생회의 회지인 〈설산〉(창간호·2호·3호·4호·8호·18호)을 당시 회원으로 활동했던 조병무 동덕여대 명예교수가 정법사에 기증했다. 그간 회지 〈설산〉은 몇몇 기록을 통해서 알려졌으나 실물이 확인돼 전 페이지가 영인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가 입수한 〈설산〉 창간호·2호 촬영본을 살펴보면 회지는 모든 글을 수기로 쓰고 등사해서 제작했다. 1955년 12월 10일 발행된 창간호는 총 62페이지로 부처님 말씀부터 회원들의 논단, 산문, 시 등이 실렸다. 회지 서두에는 학생회의 신조로 자각실천(自覺實踐)·파사양정(破邪養正)·구민제세(救民濟世)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불자 청년들은 불교정화운동에 많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순회 강사로 소개된 이수산(李壽山) 거사는 〈설산〉 창간을 축하하는 글에서 자신의 강연으로 인연이 돼 마산불교학생회가 결성되고 소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기쁘나, 등사 비용이 없어서 쩔쩔매는 학생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불교의 재원이 대처승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불교정화운동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는 조병무 명예교수가 지난 2017년 〈불교평론〉 가을호에 기고한 글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이수산 거사는 강연서 "정화운동과 함께 새로운 철학을 지녀야 하며 이를 통해 불교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5년 창간된 마산불교학생회 회지 〈설산〉의 창간호 표지.

정법사 근대문헌 수집과정서
당시 회원 조병무 교수 기증

정화운동 감명…학생회 조직
회지 '설산' 발간하며 활동해
미신타파·불교계몽 운동 등
전쟁 後 청년 불자 인식 확인

청년들의 글에서는 당시 불교인식도 확인된다. 초대 회장이었던 김태문은 창간호 권두언 '자각만이 우리의 살 길'을 통해 스스로의 깨달음 없이 남을 깨닫게 할 수 없고, 중생을 구제할 수 없으니 자각(自覺)이야말로 나라를 올바르게 하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 회원 전일수는 수록된 '불교와 나(창간호)'에서 현재 불교의 미신적 요소를 걷어내고 지성으로 채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처럼 마산불교학생회 회지 〈설산〉은 한국전쟁 직후 불자 학생과 청년들의 신행활동과 불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으로 평가된다.

오경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한국전쟁 직후 불교학생회가 조직되고 회지를 발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당시 청년 불자들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양한 관련 근현대 문헌들이 수집·발굴되면 근대문화재 등록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은 "창건 109주년을 맞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당시 마산포교당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근현대기 마산불교의 면면을 근현대문헌 발굴과 자료집 발간 사업을 통해 조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월결사 삼보사찰 순례 10월 2일 천릿길 입재

송광사서 시작…10월 22일 통도사서 회향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심고취와 불교 중흥 원력을 계승하기 위한 상월결사 삼보사찰 순례가 10월 2일부터 21일간 펼쳐진다.

상월결사(회주 자승, 조계종 前 총무원장)는 4월 19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보사찰 순례 일정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총도감 호산 스님과 지객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등 상월결사 대중을 비롯해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등이 참석했다.

상월결사 삼보사찰 순례는 10월 1일 승보사찰 순천 송광사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2일 입재식으로 시작된다. 이후 법보사찰 합천 해인사를 거쳐 10월 22일 불보사찰 양산 통도사에서 회향한다.

천릿길로 이름 붙여진 400여 km의 일정 중에는 지리산 노고단, 시암재, 오도재, 표충사 사자평 등 해발 700m부터 1000m에 달하는 고갯길을 넘는 곳만 9곳이다.

삼보사찰 순례는 강변길을 활용했던 자비순례보다 지리산과 가야산 등 삼보사찰 인근 산길을 넘는 구간이 많다. 천릿길은 순천 송광사를 시작으로 구례 사성암, 화엄사, 천은사 등을 거쳐 지리산 시암재를 넘어 실상사에 당도하는 지리산 구간(1일차~6일차)과, 실상사에서 오도재를 넘어, 함양, 거창, 가조를 지나 해인사에 도착하는 구간(6일차~10일차), 해인사에서 고령을 지나 창녕과 밀양을 거쳐 표충사에 도착하는 구간(10일차~17일차), 표충사 사자평을 넘어 언양을 지나 통도사에 도착하는 구간(17일차~22일차)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진행된 상월결사 자비순례와 마찬가지로 새벽 3시 기상해 묵언 속에서 오후 4시까지 행선이 진행된다. 오전 7시 아침공양과 오전 11시 점심공양은 대부분이 길 위에서 이뤄진다. 숙식을 위한 장소에 도착하면 저녁예불과 회향의식으로 마무리 되며, 오후 5시 저녁 공양 후에는 자율정진이 이어진다.

사찰 순례 성격인 만큼 인근 사찰들과의 유기적인 활동이 다른 순례와 차이점이다. 순례 3일차와 4일차에 화엄사와 천은사를 거친다. 5일차에는 실상사, 9일차에는 해인사, 16일차에는 표충사를 방문한다. 지역 불교계 순례 동참과 함께 순례 과정에서 지역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불교와 우리사회 미래를 위한 고민을 결사 대중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상월결사는 이번 순례가 불교 중흥뿐만 아니라 국난 극복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 같은 의지에 주요사찰서는 상월결사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 스님은 "성지순례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사찰에서 적극

400여 km, 남도 산맥 종주
화엄사·실상사·표충사 등
지역거점 사찰도 참배 예정
불 법 승 귀의와 정진 취지

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며, 송광사 종회의원 일화 스님도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 고려후기 송광사 정혜결사처럼 상월결사가 새로운 정혜결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대중들이 함께 사찰, 그리고 사찰이 아닌 곳에서 결사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월결사는 전국 불자들과 비불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난을 극복하고 불교를 중흥하는 불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삼보사찰 순례 네이밍을 5월 21일까지 공모하며, 공모 당선자에게는 삼보사찰 순례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공모 신청은 봉은사 홈페이지 팝업공고를 통해 가능하다.

전국사찰 상월 걷기순례도 4월 해인사 본말사 걷기순례에 이어 5월 11일 봉선사 걷기순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